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TV 소설 〈청춘예찬〉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 다큐 〈건강의 발견〉	30 아침 연속극 〈순결한 당신〉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아내와 여자〉 30 남희석, 최원정의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날	05 좋은아침 플러스 원 30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아름다운 정원	40 지구촌 뉴스	10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2TV 스페셜 〈스핀지 2.0〉	11	00 화면해설방송 〈내 인생의 황금기〉(재)	00 KBC 정책대담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듣는다
00 KBS 뉴스 12	10 KBS 네트워크 - 대전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화면해설방송 〈비포 애프터 성형외과〉(재)	00 뉴스와 생활경제 10 KBC 생활뉴스 20 위기일발 야생동물 vs 인간
00 KBS 걸작선 〈엄마가 뿔 났다〉(재)	00 인간극장 스페셜 〈산골 남매의 겨울 일기〉 30 앙코르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재)	1	50 MBC 스포츠 〈인사이드 바스켓볼〉	30 신기한 세계 놀라운 세상
00 KBS 뉴스 10 특집 생방송 〈2009 내나라 여행박람회 오감만족 대한민국〉	10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재) 50 2TV 스페셜 〈소비자고발〉	2		00 SBS 뉴스 10 드라마 스페셜 〈정관의 치〉
55 새천년 건강체조		3	15 MBC 네트워크 특선 〈빛을 향해 달린다〉	00 중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0 삼국쥐전	00 꼬꼬마 꿈동산 25 이주일의 동요 30 개구쟁이 음악회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M-3 특공대	00 아기공룡 둘리 30 UCC 과학탐험대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TV유치원 파니파니 30 활력충전 530	5	00 MBC 뉴스 20 우리집 주치의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사투리쇼 얼룩말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35 생방송 무한지대	6	30 MBC 뉴스 50 신나 軍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쟁점토론	25 지구촌 네트워크 한국인	7	45 일일시트콤 〈그분이 오신다〉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 드라마 〈아내의 유혹〉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00 KBS 8 뉴스타임 25 KBS 8 뉴스타임 - 광주전남권 40 스포츠 인 스포츠 55 대결 노래가 좋다	8	15 일일연속극 〈사랑해, 울지마〉	00 SBS 8 뉴스 25 KBC 8시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 9	55 수목드라마 〈2009 미워도 다시 한번〉	9	00 MBC 뉴스데스크 50 수목미니시리즈 〈돌아온 일지매〉	55 드라마 스페셜 〈카인과 아벨〉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느티나무		10		
00 KBS 뉴스라인 30 현장르포 동행	05 해피 투게더	11	05 불만제로	05 연애시대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지구촌 네트워크 한국인	15 생방송 시사 360 45 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재)	12	00 MBC 뉴스24 10 MBC 100분 토론	15 나이트 라인 45 앙코르 다큐멘터리

EBS

06:00 Easy Job English
06:15 Read & Speak
06:35 잉글리시 카페
07:00 헬로! 부부토
07:1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25 수퍼와이
07:50 달려라 카카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뽕실뽕실 동물마을
08:30 빠삐에 친구
08:40 천사랑
09: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09:15 방귀대장 뿡뿡이
09: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35 아무아무 참참
09:45 리틀 프린세스
10:00 60분 - 부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박주희의 손쉬운 이탈리아 요리〉
11:30 세계 테마 기행 〈일본의 4현 4색〉
12:10 다큐프라임 - 원더풀 사이언스
13:00 뚝딱이와 친구들
13:10 로저의 단짝 친구들(1)
13:35 로저의 단짝 친구들(2)
14:00 작은 녀석들
14:10 모래요정 바람돌이
14:35 빼꼼
14:40 야! 러그레츠
15:0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10 방귀대장 뿡뿡이(재)
15:25 알록달록 콩콩이
15:35 천사랑(재)
15:55 아무아무 참참(재)
16:05 톰 소여의 모험
16:30 꼬마기관차토마스와친구들(재)
16:40 리틀 프린세스(재)
16:55 딩동댕 유치원(재)
17:15 뽕실뽕실 동물마을(재)
17:25 수퍼와이
17:50 〈생방송〉톡! 톡! 보니하니
18:50 비키와 조니
19:00 모래요정 바람돌이
19:25 보물섬
19:50 장학퀴즈
20:40 달려라! 도라라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EBS 뉴스(생)
21:45 지식채널 e
21:50 다큐프라임 - 원더풀 사이언스
22:40 극한직업
23:10 다큐 10+ 과학 절대영도, 그 한계를 향한 도전
00:00 3분영어
00:05 지식채널 e
00:10 우리시대 명의의 건강학

EBS플러스1

07:00 EBS 포스 〈수학 II〉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상)〉
08:40 〃 〈수학(하)〉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릭! 사이언스
09:35 TV로 보는 박물관
09:40 EBS 수능 플러스 〈탐구영역〉
10:30 세계테마기행
11:10 역사극장
12:00 고1 예비과정 〈국어〉
12:50 〃 〈수학〉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수학(상)〉
14:30 〃 〈수학(하)〉
15:20 겨울방학특강 〈문학〉
16:10 〃 〈비문학〉
17:00 EBS 수능특강 선택 - 고3(재) 〈윤리〉
17:50 EBS 학습자료실 - 과학사
18:00 EBS 포스(재) 〈현대문학〉
19:00 〃 〈수학 II〉
20:00 EBS 수능특강 선택 - 고3(재) 〈지구과학 I〉
21:00 고1 예비과정 〈영어〉
21:50 EBS 수능플러스(재) 〈탐구영역〉
23:00 EBS 수능특강 선택 - 고3(재) 〈외국어영역〉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학 1학년 〈영어〉
08:40 〃 〈과학〉
09:20 중1 예비과정 〈국어〉
10:00 방귀대장 뿡뿡이
10:15 딩동댕 유치원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0:50 달려라 도라라
11:00 일일드라마 〈깡순이〉
11:30 만들어 볼까요
11:4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댕댕
12:00 EBS TV 중학 2학년 〈영어〉
12:40 〃 〈과학〉
13:20 중1 예비과정 〈수학〉
14:00 중학영어독해 lever 2
15:30 2009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 이론편(재)
16:00 9급 공무원시험대비 강좌(재)
16:30 EBS 경제드라마 〈동그라미 가족〉
17:00 EBS초등 친절한 선생님 〈과학 3-1〉
17:30 〃 〈과학 4-1〉
18:00 〃 〈과학 5-1〉
18:30 〃 〈과학 6-1〉
19:00 EBS TV 중학 1학년(재) 〈영어〉
19:40 〃 〈과학〉
20:20 중1 예비과정 〈국어〉(재)
21:00 EBS TV 중학 2학년(재) 〈영어〉

저우룬파 "한국 팬 여전히 사랑해요"

내달 12일 개봉 영화 '드래곤볼 에볼루션' 홍보 내한

"도시가 엄청나게 화려해졌지만,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여전한 것 같네요. 한국을 사랑합니다."

1980~1990년대 한국 팬들을 사로잡았던 홍콩 느아르의 스타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사진)가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저우룬파의 공식 방한은 '화기소림' 홍보차 내한한 1994년이 마지막이었다.

그가 한국을 다시 찾은 것은 다음 달 12일 개봉하는 영화 '드래곤볼 에볼루션'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드래곤볼 에볼루션'은 1984년 첫 출간 이후 2억부가 팔려나간 만화 '드래곤볼'을 실사화한 영화다.

저우룬파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은 무천도사. 주인공 손오공 역은 저스틴 채트윈이, 부르마 역은 에미 로섬이 각각 연기했다.

18일 기자회견에는 이들 외에도 야무치 역을 맡은 god 출신의 한국 배우 박준형과 무술소녀 치치 역을 맡은 재미교포 2세 배우 제이미 정, 이 영화의 감독 제임스 왕도 참석했다.

검정 상하의 차림에 콧수염을 기른 채 특유의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저우룬파는 "안녕하세요. 아임(I'm) 주윤발. 감사합니다"라며 한국 말을 섞어서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1981년 영화 촬영차 처음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도시의 모양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똑같은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며, 김치의 냄새가 강하다는 것 역시 여전하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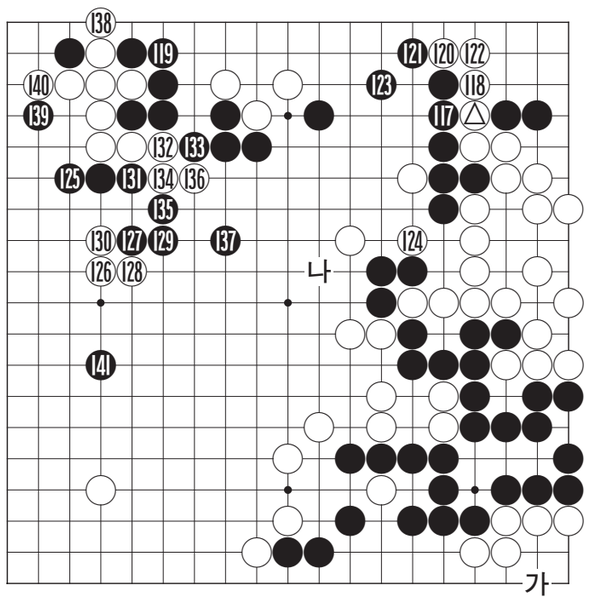
또 "홍콩 영화계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출연 제의가 온다. 좋은 제작 환경이 마련된다면 홍콩 영화에 다시 출연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홍콩이 합작하는 영화라면 기꺼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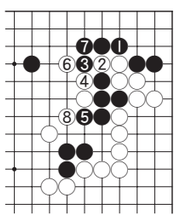
눈물을 머금은 후퇴

최강부 1회전 8보 (117~141)

白 선계성 6단 黑 노기철 5단



우변의 처절했던 전투의 결과는 백의 우세. 비록 우하귀의 백 넉점이 잡히고 '가'로 잡히는 수가 남았다고는 해도 백 Ⓐ로 뚫고 나가서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


〈참고도〉

백 Ⓐ로 나왔을 때 흑이 '참고도'의 흑 1로 막는 수는 없다. 그러면 백 2로 뚫고 4로 끊어 8까지 흑이 망한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흑 117로 둘 수밖에 없고 백 118로 우상귀를 백이 차지하게 되었다.

우변의 승부패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노기철 5단은 흑 119로 잇고 버텼는데 이 수로는 지금이라도 '나'에 두어 중앙을 키워야 했다. 선계성 6단이 잽싸게 백 20으로 젖혀 잇고 124로 중앙을 보강한 것이 컸다.

노기철 5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흑 25에 내려서는 수. 좌상귀의 백을 핍박하여 후수로 살게 만들고 좌변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선계성 6단도 이것을 간파하고 126으로 협공하고 141까지 좌변이 승부처가 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9일(음 1월 25일 乙未)

子 36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도 편안하다. 48년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도 힘들다. 60년생 분주한 하루로다. 72년생 먼저 도움을 주면 보답은 그 이상이리라. 84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라. 행운의 숫자 : 08, 37

丑 37년생 활동한 만큼 재물이 들어온다. 49년생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협조하라. 61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과감히 진행하라. 73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85년생 구사가 시비로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45

寅 38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라. 50년생 간절한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 62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쨍하니 해가 뜨리라. 74년생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19, 28

卯 39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51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63년생 주변 상황변화에 주의하라. 75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와 즐거우니 준비를 잘하여 맞으라. 행운의 숫자 : 32, 42

辰 40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52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64년생 자녀와 많은 대화를 갖고 앞날을 이야기하라. 76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33, 36

巳 41년생 오전은 불편하나 오후는 평안하리라. 53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65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길일이 된다. 77년생 손윗사람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43

午 42년생 소중한 물건이 안보이니 단속을 잘하라. 54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결과는 속상하다. 66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78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8

未 43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다정한 시간을 내라. 55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67년생 남과 말다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79년생 깨진 불도 다시보자 화재를 주의를 하라. 행운의 숫자 : 03, 12

申 44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라. 56년생 갑자기 속 터지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68년생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80년생 친한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5, 20

酉 45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나 마음은 불편하다. 57년생 추진하는 일을 한 번 더 점검하라. 69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81년생 저녁외출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35

戌 46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라. 58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0년생 외적인 미려함보다는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2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44

亥 47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심성을 안정하라. 59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위탈이 없다. 71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리라. 83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손해가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 39, 4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252>

Where did you learn to play bridge?

어디서 자네는 브릿지 게임하는 것을 배웠나?

A : Where did you learn to play bridge?
B : My parents played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old enough to learn they taught me.
A : I would really like to learn how.
B : I can reach you if you would like.

A : 어디서 자네는 브릿지 게임하는 것을 배웠나?
B :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하셨지.
그때는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A : 게임하는 법을 배웠으면 정말 좋겠다.
B : 네가 배우고 싶다면 너한테 연락을 할께.

* how : 방법
* reach : 연락을 취하다
* 어디서 영어를 배웠나?
= Where did you learn to speak English?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252>

危(あや)うく

하마터면, 자칫하면

A : 今朝危うくバスに踏まれるどころだったよ
B : まじで?
危なかったね。本當に。氣を付けろうよ。

A : 오늘아침 하마터면 버스에 밟힐뻔 했다.
B : 진짜?
위험했네. 진짜로. 조심해.

위의 글에서는 하마터면, 까딱하면, 자칫하면 이란 의미로 쓰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겨우, 간신히로도 쓰여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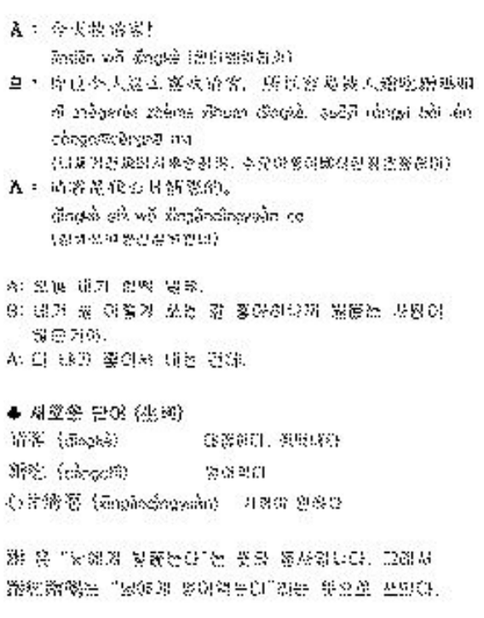
* 今日も危うく登校時間に間に合った
오늘도 간신히 등교시간에 맞췄다
(오늘도 겨우 지각을 면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28>

今天我请客!

오늘 내가 한턱 낼께!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968>

招魂(초혼)

부를 초, 넋 혼

초혼(招魂)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이다. 유학에서는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은 혼(魂)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儀禮化) 되었다.

사람이 죽은 직후, 죽은 사람이 생시(生時)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지붕 위나 마당에서서,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북쪽을 향해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죽은 이의 생시호칭(生時呼稱)을 세 번 부른다. 예를 들면, '서울 혜화동 김수환(金壽煥, 1922~2009)추기경(樞機卿) 복(復)'이라고 하며, 이것을 '고복의식'(皐復儀式) 또는 '초혼'이라고 한다. 즉 초혼은 죽은 이를 소생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부름의 의식'이다.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시 '초혼'은 바로 이런 고복의식의 절차를 통하여 사별(死別)의 한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는 우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하고 한번 부른 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하고 재차 부르고, 마지막으로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비장하게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외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